2020년 **12**월**,** 쌍둥이 아빠의 **808 Loko Surf Lesson** 후기

재택 근무와 온라인 학교 수업이 뉴노멀이 된 2020년, 우리 가족은 연말에 한달간 Work from Hawaii를 하기로 결정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코로나로 대표되는 2020년 이 때가 아니면 평생 살면서 언제 가족 모두가 하와이에서 한달살이를 해 볼 수 있을까 싶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조금은 무리해서 이 곳으로 왔다.

비치에 갔더니 역시 서핑의 천국답게 파도를 즐기는 많은 서퍼들이 있었고, 그걸 본 아이들이 자기도 해보고 싶단다. 그래,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문제지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다는데 그걸 여기까지 와서 왜 못해주겠나 하는 생각으로 서핑 레슨을 검색해봤다. 아이들은 한국어랑 영어 둘 다 괜찮다지만 내가 아무래도 한국어가 더 편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한국 업체를 검색해 봤더니 808 Loko Surf가 곧바로 검색이 되었다. 온라인에서 대강의 가격과 내용을 확인하고선 한인 레슨이 아닌 다른 업체도 검색해서 비교해 봤는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적어도 가격이 더 비싸거나 레슨 시간이 짧다거나 그룹 인원이 더 많다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편리하게도 카톡으로 실시간 문의하고 다소 늦은 시간임에도 아주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 받아가며 예약할 수 있었다.

픽업과 드랍을 해주신다고는 했지만 우리는 렌터카가 있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자차로 이동했다. 안내 받은 곳으로 아침에 갔더니 평일이라 그런지 코인 주차 말고도 길가에 무료 주차 공간이 남아 있었다. 시작부터 운이 좋다. 넓은 공원을 가로질러 서핑 배우는 장소로 가는데, 강사님께서 어찌 우리를 알아보시곤 여기라며 손을 흔드셨다. 전 날 예약할 때 아이들 키를 물어보더니 아이들 몸에 맞는 수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에는 레슨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그 덕에 레슨은 우리 아이들 둘만 받게 됐다.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레슨 받는 건 요즘 시기에 살짝 신경 쓰이기도 하고 한 아이 당 강사님이 투자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 게 될 텐데, 이번엔 온전히 우리 아이들한테만 집중해 주시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레슨을 받게 됐다.

햇볕도 좋고 파도도 적당한 날씨의 도움을 받아 레슨 시작. 우선 잔디밭에서 간단히 보드에 엎드려 있다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는 곧 입수. 같이 간 나랑 아내는 해변 공원 그늘진 벤치에 편히 앉아 아이들 서핑 레슨을 구경했다. 마침 가방에 여기저기 다니며 전망볼 일 있을 때 쓰려고 가져온 쌍안경이 있어 벤치에 앉아 멀리서도 아이들이 레슨 받는 걸 편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레슨을 적어도 한두번 받고 나야 보드에서 일어서서 파도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짐작했는데, 웬걸 바다로 나간지 불과 10여분만에 강사님이 파도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 밀어주는 보드에 어정쩡하게 서서 파도를 타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곧잘 타는 거다. 아, 내 자식들이긴 하지만 난 니네가 부럽다. 내가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다닐 땐 방학 때 하와이가서 파도타기를 한다는 건 TV에서나 보던 재벌집 자식들 아니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한창 레슨 받던 중 강사님이 아들만 데리고 바다에서 나오셨다. 아들이 멀미를 한다고. 평소에 차 멀미도 곧잘 하더니 에고... 아들은 우리가 데리고 있고 결국 딸아이만 나머지 시간을 1대1로 레슨을 받았다. 딸아이가 파도 타며 엄청 신나서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예약할 때 안내 받기로는 레슨이 대강 한시간 반쯤이라고 들었는데, 두시간이 좀 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중 마지막 한시간 가까이는 딸아이의 개인 레슨 시간...)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다. 레슨이 끝나고 물 밖으로 나온 딸아이는 12월 날씨에 좀 추워하면서도 신나서 흥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나중에 멀미기가 가라앉아서 해변에서 놀던 아들은 부러움을 감추고선 자기는 멀미 때문에 괴롭긴 했지만 내일은 멀미약 붙이고 또 오겠단다. 응? 내일 또 하는 거였어? 그랬구나, 내일 또 하는 거였구나. 너가 그렇게 정했구나. 그래 이 때 아니면 또 언제. 그리고 탁구나 야구, 수학 공부는 몰라도 서핑은 아빠가 가르쳐줄 수 없는 거니.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게 문제겠냐. 요즘 주식 올랐던데 그거 한 주만 팔... 흠흠.

레슨 끝나고 오늘 우리 아이들만 하이 퀄리티의 레슨을 받게 돼서, 그리고 아이들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선 자발적으로 강사님께 약간의 팁을 드렸더니 아주 감사하다고 하신다. 저희야말로 아이들 오래 기억할 신나는 추억거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걸요.

오후에 숙소로 돌아와서 카톡으로 아이들 레슨 재미있게 잘 받았다고 인사드리고 곧바로 다음날 레슨도 예약 부탁드렸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주 친절한 멘트로 이것 저것 안내해 주시면서 두번째 레슨부터는 로코 가족 할인 적용하겠다고 알려주신다. 기대 안했는데, 보너스 받은 기분이다.

좋은 곳에서 좋은 날씨에 좋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안겨 준 좋은 아빠가 된 뿌듯함을 느낀 좋은 하루였다. 내일은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신나게 즐기길 바라며, 거창하게도 인류사에 기록될 2020년이 마무리 되어 가는 지금, 이 곳 하와이에서 우리 가족의 사소하지만 소중한 추억도 더해간다.